

# 60대 인구, 40대 제치고 2위 오른다... 사상 첫 추월 '눈앞'

8~9월쯤 연령대별 인구 2위 전망  
40대 782만명, 60대와 10만명 차  
10년 전 나이대별 7위서 수직 상승

올해 3분기 중 국내 60대가 40대를 거주민 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친다. 60대는 오는 8월 또는 9월께 50대에 이어 연령대별 인구 2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772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1950년대 중후반 및 1960년대 초중반 출생이 주축인 이 나이대 인구는 지난 10년간 급증을 거듭했고, 40대(782만 명)와의 격차를 10만명까지 줄였다. 10년 전인 2014년 5월만 해도 60대는 455만 명으로,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 이하에 이어 나이대별 인구순위 7위에 처해 있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영양제 등을 전달하고 있다. /유한양행

이후 유소년 인구 및 20대·30대 등을 차례로 따라잡은 뒤 현재 3위에 자리하고 있다.

40대는 10년 전 거주민 수가 가장 많

았으나 지난 2018년 8월 50대에 선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제 올해 3분기 중 60대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게 된다.

40대와 60대의 격차는 1년 전인 지난

해 5월 말 기준 47만 명(800만 명 대 753만 명)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 32만 명 차로 좁혀졌고 올해 5월 불과 10만 명 차까지 줄었다. 연평균 37만 명 증한다는 가정하에 격차는 매월 3만 800명쯤 줄어든다. 추세가 유지될 시 이른 8월, 늦어도 9월 말쯤 60대는 40대 인구를 앞지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60대 인구의 급증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60대 진입이 한몫했다.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60대는 2014년 5월 455만 명에서 올해 5월 772만 명으로, 317만 명(69.6%) 늘었다. 총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2019년 11월(626만 명)에 비해서도 60대는 146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50대(872만 명)보다는 아직 100만 명 적다. 하지만 이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 흐름을 타고 차이를 빠르게 좁혀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자인구만 놓고 보면 60대가 이미 40대를 올해 2월에 추월했다. 행안부 집계 5월 기준으로 40대 여성이 384만 명, 60대 여성이 392만 명이다. 여성은 또 70대(218만 명)가 10대(225만 명)를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다. 9세 이하 여아의 수는 158만 명에 그쳤다. 오는 2027년쯤 국내 여자인구는 만 50세 이상이 절반 넘게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50살 이상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의 40%를 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아파트 건축자재 매입담합 20곳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2억 부과  
방음방진재 등 사업자 사전 가격담합

아파트 건축자재를 사들일 때 입찰 가격을 깎아미끼 의혹을 받는 업체 20곳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 총 12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등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2022년 4월 기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대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시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등에 대한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 20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방음박스. /뉴시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총 12억 1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20개 업체는 (주)태우에이티에스와 (주)하이텍이엔지 등이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

진행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고,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 셋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소부장' 핵심기술 구축에 4년간 700억 투입

산업부, 신규과제 7개 공모

정부가 이른바 국내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에 7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7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7개 신규과제는 ▲반도체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디스플레이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자동차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환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전기전자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구축 ▲기계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금속 수소 산업용 고인성·내수취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기초화학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이다.

이들 과제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인공지능(AI)

I) 반도체 개발, 자율협업 제조공정, 친환경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원규모는 향후 4년간 국비 총 700억 원으로,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다.

과제 접수는 오는 7월3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재화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장비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호한 장비구축 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 수요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韓 '수삼' 하반기부터 美 수출길 열린다

텍사스산 자몽 수입 검역 최종 타결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반대급부로, 우리는 텍사스산 자몽을 들여오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6월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봄 햇수삼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내 수입 허용을 공고했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삼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수질원격감시체계 우수 활용사례 공모

환경부,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신청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공단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의 목적은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활용해 사업장 내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 또는 활용계획을 적극 찾아내는 데 있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 확대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우편(wtms@keco.or.kr)을 통해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www.soosiro.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